

2022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모임

# 어디서, 어떻게 예술 할까?



수원문화재단  
Suwon Cultural Foundation

# Contents

---

- |    |                                 |    |
|----|---------------------------------|----|
| 01 | 문화예술교육 거점 이해<br>푸른지대 창작센터       | 3  |
| 02 | 공적 공간자원 이해<br>우만동종합사회복지관        | 11 |
| 03 | 수원도시재단 사례<br>행궁동 어울림센터          | 20 |
| 04 | 수원문화재단 공간과 민간공간<br>복합문화공간 111CM | 26 |
| 05 | 거점구축 및 네트워킹의 방향성<br>푸른지대 창작센터   | 35 |

# 01

**문화예술교육 거점 이해**

푸른지대 창작센터

## 01

## 문화예술교육 거점 이해

## 1

## 개요

**일 시** 2022년 10월 19일 수요일 14:00 ~ 17:00 (3시간)

**장 소** 푸른지대창작센터 전시실

**활동인원** 코코코 최윤주, 이하윤, 전지선 (3명)

**참여인원** 백현주 독립기획자, 문화예술교육가 및 관계자 13명,  
수원문화재단 김유리 팀장, 박지원 차장 (16명)

**내 용** 문화예술교육 거점에 대한 이해

## 2

## 개회 및 인사

## ■ 참여 동기 및 인사

- 전반적으로 진행하시는 내용이 궁금해서 참여했다.
- 수원문화유산을 기반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수원화성행궁에서 부스운영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참여했다. 수원에 이런 공간(창작센터)이 있는 줄 몰랐다. 오게 되어 기쁘다.
- 학교 교장들이 지역사회에 잘 참여를 안 한다. 학교자체가 바쁘기 때문이기도 하다. 남창초등학교는 수원에서 가장 작은 초등학교이다. 교사로 근무해오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교육중 하나가 문화예술교육이라고 생각했다. 이 지점을 어떻게 풀어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좋은 자리가 있어 도움이 될 것 같아 참여했다.
- 글을 쓰고 있는 작가이자 기획자이다. 수원에서 40년 살았고 시민농장에서 배추를 키우고 있다. 수원이 고향이지만 공교롭게도 일은 계속 서울에서 하고 있다. 나는 왜 지역에서 활동하지 못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수원에 어떤 문화예술 거점 공간들이 있고 수원시민으로서 문화예술교육에 어떻게 참여하고 관여할 수 있을지 해답을 얻고 싶어 참여하게 되었고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준비해나고 계시는지도 알고 싶다.
- 지역 안에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모임의 홍보 문구를 보고 참여하게 되었다. 문화예술교육을 어떻게 사람들과 협력하고 만들어 나가야할지에 대해 여러 예술인들을 만나 듣고 싶었고 이야기 되는 내용들이 수원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으로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참여했다.

- 2016년도에 수원에 와서 지동에서 들락날락예술가게라는 공간을 두고 활동하다가 지금 공간을 정리한 상태이다. 박지원 차장님께서 네트워크 모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셔서 오게 되었다.
- 경기 남부권, 수원, 화성 등에서 지원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 나누고자 편안한 마음으로 왔다.
- 2022년 경기시민예술학교 수원캠퍼스 기획자이다. 수원에 어떤 문화예술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궁금해서 오게 되었다.
- 사진작가로 활동하면서 기획 활동을 하고 있다. 수원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지 수원에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어떤 공간들이 있는지 궁금했다.
- 그림 그리는 작가 이다. 활동은 인천에서 많이 하고 있다. 사는 곳은 수원인데 수원에 어떤 문화예술교육들이 있고 어떤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 참여하게 되었다.

## 3 강의

- 기초단위거점의 목표와 기대역할 (백현주 독립기획자)
  - 문화예술교육의 거점이란
  - 거점 지원 사업의 예
  - 거점의 의미와 역할
  - 거점에 대한 이슈

## 4 질의응답 및 토론

- 최윤주(코코코) : 이 모임을 기획할 때 현장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에 있어 실제 공급자들과 어떻게 호흡을 맞춰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재단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던 중 문화예술교육 기획이나 교육을 진행하는 실제 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우선은 우리가 함께 ‘어디서 어떻게 예술할까’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 지길 바랐다. 이 자리에서 실제 로드맵을 그리고 실질적인 결론을 내놓기 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거점구축을 위해 개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을 발견하고 함께 나아가는 에너지를 모아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다. 오늘 첫 모임에서 백실장님을 모시고 문화예술교육 거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화두로 던져주신 이슈들 중 각자 궁금한 점이나 의견들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 ■ 수혜자의 거점 VS 공급자의 거점

- 문화예술교육의 공급자로서의 거점들이 있다면 수혜자로서의 거점도 있는데 지금 논의해야 할 부분이 명확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이전에 실버 생애주기별 교육에 대한 컨설팅이나 모니터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영화를 제작하거나 연극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들이 많았다. 기획자와 예술가들을 만나 인터뷰를 했을 때 그들은 노인과 함께한다는 소명아래 예술 활동을 하고 있었다. 예술가들에게도 그 수혜대상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거점에 대한 논의에서 예술가들의 거점,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의 거점이 세분화 된다면 예술가들과 수혜대상자들과의 실질적인 연결지점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수원의 문화예술교육 거점구축을 위해 공급자와 수혜자들의 거점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해서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예술가들, 행위자들을 위한 거점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다.
- 백현주(독립기획자) : 창작자가 아닌 기획자로서 거점공간을 만들고 10년째 운영해 오는 사람도 있고, 문화예술 향유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곳도 있다. 그러나 그런 곳들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매칭하고 연결해주는 역할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과연 그럴 여력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 수원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장소, 프로그램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요즘 20, 30대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이 있다면 알아서 찾아가서 교육을 받는다. 이미 수많은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수원시 안에서 문화예술거점 공간을 마련해서 무언가 한다고 할 때 수혜자들이 직접 필요에 의해 찾아서 받는 교육과 어떤 차별점을 둘 건지, 예술가가 좋아하는 걸로 시작할 건지 아니면, 수혜자를 위한 예술로서 시작할 건지에 따라서도 결이 굉장히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 어떤 콘텐츠를 누굴 위해서 만들어낼 것인가 뿐만 아니라 누가 만들 것인가도 중요할 것 같다. 예술가가 만드느냐, 기획자가 만드느냐, 교육자가 만드느냐에 대해서도 이야기 되면 좋겠다.

## ■ 공간지원 VS 프로그램 지원

- 우리 입장에서는 거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모 사업들이 조금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하고 싶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사비를 들여서 하면 좋겠지만 그 역량에 한계가 있으니 공공의 힘을 빌어서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 상캠프에 있을 때 공방을 작게 한 적이 있다. 오천원을 받고 나무장난감을 만들었다. 강사는 아니었지만 문화예술교육자로서의 태도를 가지고 접근했다. 사람을 만난다는 마음으로 임하면서 참여자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으나 문화예술교육의 공급자가 그곳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어야만 거점구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거점 구축에 있어서 프로그램적인 접근이 아닌 공간적인 접근이 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거점이라는 것에는 공간과 사람 그리고 그들의 태도나 역량도 중요하다.
- 요즘에는 고정적인 공간 지원보다는 유동적으로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간에 있어서 참여자들의 유연성을 반영해줄 수 있는 것이 요즘의 니즈와 트렌드에 더 적합하다고 본다.

■ 거점의 지속가능성과 지원 정책의 필요성

- 오늘 이 공간에서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이 공간에서 무엇이 가능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다. 여기(푸른지대창작센터)가 예술가들의 레지던시로 사용 되고 있는데 조금 더 개방적일 수는 없을까 생각했다. 여기서 문화예술교육이 가능한가라는 지점에서 가장 논의될 만한 부분이 접근성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인데 접근성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활동들이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은 올 것이다. 거점이라는 것이 무언가 딱 완성되어 있는 공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는 것만은 다가 아니다. 교육을 통해 수혜자들의 성장도 필요하지만 공급자들의 성장도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지속가능한 지원들 또한 거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 현재 예술교육팀에서 관리하는 공간들을 예술교육팀에서 꾸준히 계속 관리를 한다면 예술가들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것이다.
-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예술가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있어야하는데 그 점이 미비하다 보니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2005년 7월 1일자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발효되어서 강제 시행한 걸로 안다. 광역단위에서는 강제되어있지만 기초단위에서는 강제되어있지 않다. 정부의 제도와 정책이 같이 맞물려서 조성되지 않으면 기초단위에서 아무리 자발성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지속가능하기는 힘들 것이다. 행정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이끌어 내줘야 한다. 올해 무엇을 한다고 하면 예산 배분의 문제로 내후년이 되어야 실행이 가능하다. 현장에서는 2년을 기다리기 힘들다. 그 시간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만한 제도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거점마련과 함께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
- 김유리(수원문화재단) :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바로 그 지점이다. 시의원을 만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관련 조례를 만드셨던 시의원께서 도의원이 되시면서 더 이상 진전이 어려워 난감한 상황이다. 계속해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쌓아올려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꾸준히 이야기를 꺼내면서 빌드업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예술교육의 거점, 공간이나 사람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일까 고민해보면 수원에는 공간도 사람도 프로그램도 뭐든 다 있다. 각자 각개전투를 하며 잘 모여 지지 않는 상황에서 문화재단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공급자, 수요자 간의 매개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각 수요처에서 예술 강사들에 대한 인력풀을 달라고 종종 말씀을 주시는데 문화재단에서 제공되는 사람들이라면 수업을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신뢰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 재단에서 그런 역할들을 감행할 필요를 느꼈다.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은 재단 귀속은 아니지만 주어진 기한 동안은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사용하도록 만들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책적인 부분에서 다시 시도를 해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필요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토대로 행정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시에서는 이것이 문화예술과의 업무냐 교육청소년과의 업무냐 갈피를 잘 잡지 못하는 상황인데 재단에서는 문화예술과로 확실히 업무분장을 해달라 계속해서 어필하고 있다.
- 문화예술교육이 교육과 문화예술의 경계선 상에 있다 보니 서로 주체가 불분명하고 전문성이 뒷받침 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 시 의원들이 문화예술교육을 피부로 접해보며 정책의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은 생애주기별 교육으로 지자체 평생교육과 또는 문화예술과로 가야한다고 본다.

■ 거점구축에 대한 방향성

- 최윤주(코코코) : 우리가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정책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과제들이 있어 보인다. 현재 재단과 행정 측에서도 시민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시민들의 실제 니즈들이 무엇인지 이야기들을 더 들어보아야 할 것 같다. 아까 창작샘터의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다음 차시들에서 예정되어 있다. 그곳에서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수요자와 공급자 입장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될 거고 오늘은 백실장님 강의를 통해 거점 구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보고 그 방향성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고자 한다. 공간들도 사람들도 이미 충분하고 봤을 때 그림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고 싶은지 여쭙보고 싶다.
- 지금 논의하려는 문화예술교육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다. 각자가 가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기본 개념이나 철학이 다 다를 것이고 교육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론을 갖고 있는지,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걸 가르치는 건지 아니면 인문예술적인 태도를 위한 교육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거점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현장의 이야기들을 정책적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중요한 건 그 거점 공간을 만들어냈을 때 사람들이 그 곳에 왜 가는지가 더욱 중요한 것 같다.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하시는 문화예술교육이 무엇인지, 어떻게 예술 할까에 대한 구체적인 지향점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 문화예술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해 지난 10년간 정의를 내리지 못한 것 같다. 현재 수원적인 문화예술교육은 없다고 본다. 문화예술교육이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가를 만들기 위해서도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물리적인 공간도 필요하고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모임도 필요할 것 같다. 서로 모여서 각자의 방식들을 공유하다보면 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수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은 제로베이스에 가깝다. 모여서 쌓아 올려야 한다.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네트워킹 때문이다. 이름만 네트워크 모임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오고가며 형성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일 필요는 없다.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면 된다. 정책도 다르고 교육하고자 하는 것도 다르지만 모여서 다양한 경험들이 융합되는 거점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것들이 모여 무언가를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 시민들이 문화시민으로 전환되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추상적으로 생각해 왔던 문화예술교육이 무엇인지 정립될 것이다. 어떤 문화예술교육인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나눌 필요 없이 그냥 함께 하면 되지 않을까.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거점은 꼭 필요하다. 공간뿐만 아니라 사람과 제도와 정책이 다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 거점이라는 것은 특정 장소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다. 거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려 하다보면 어려워지는 것 같다. 그 모두를 포괄한다고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 너무 공감이 된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간이나 사람이나 역량이나 그걸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고 다 함께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어느 하나만 떨어뜨려놓고 보면 의미가 없다. 거점이라는 것은 총체적인 시선에서 접근해야 한다.

- 수원 안에 뭔가 실험적인 공간이 필요할 것 같다.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은 많다. 예술가들이 시민들을 교육 하려면 섭외하고 설득하는 일종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 문화예술교육이 계속 끊이지 않고 흘러갈 수 있는 제약 없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그것도 수원만의 독특한 콘텐츠가 될 것이다.
- 박지원(수원문화재단) :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거점구축사업을 위해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 앞서 말씀하신대로 공간, 인적자원, 정책들이 모두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들부터 이야기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수원에 공간이 많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공간들부터 함께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면 좋겠다. 사람들을 모아보고 자원에 대해 논의하다보면 관심 있는 교육가들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다. 거점구축에 있어 수원문화재단과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들과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관련 분야에 계신 분들의 관심 하나하나가 모여 힘이 된다. 개개인뿐만 아니라 복지관이나 아동센터 등 지역기관에서 문화재단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많은데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예술가, 교육자들을 연결하는 매개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알려지지 않은 아티스트들을 많이 알고 있다. 본인 또한 행정과 예술인들과의 허브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생겼다. 그런데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아 난해하다. 수요자들이 소외계층인지 직장인인지 명확하다면 연결이 용이할 것 같다.
- 영동시민들과 함께 지역이야기를 토대로 창작뮤지컬을 만드는 사업을 4년 동안 해왔다. 단순히 문화예술 활동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지역의 커뮤니티 형성이나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커뮤니티아트를 교육과 연결시켜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고민이다.

## ■ 거점과 공간의 의미

- 백현주(독립기획자) : 들락날락예술가게는 지동이라는 지역에서 자체 공간을 두고 그 지역의 거점의 역할을 해오셨는데, 활동하면서 느꼈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 우리 팀은 부처 간,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을 시작으로 3년 동안 아르떼와 작업을 했었고 경기문화재단에서도 많은 활동을 했었다. 수원문화재단과는 작년부터 함께 하게 되었다. 경기지역을 거점으로 지역 아동센터를 담당하는 사업을 맡았을 때 팀 내 사람들만으로는 진행이 어려웠다. 주변에 우리의 예술매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 함께 하다가 수원에 공간을 만들게 되었다. 그 공간에서 생활문화 플랫폼사업을 3년간 진행 했었는데 플랫폼, 허브 이런 것이 거점과 비슷한 의미로 다가왔던 것 같다. 지역에서 공간을 두고 활동하면서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열쇠를 내어주기도 했었는데 공간을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워 올해 1월에 공간을 접었다. 7,8년 동안 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공간은 없어졌지만 지역 주민들과는 계속 연결이 되어 있다. 사람은 아직 남아 있고 우리의 마음도 아직 남아 있다 보니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들이 있었다.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에 있는 청룡마을 창작센터라는 문화예술 공간을 쓰고 싶었는데 행정 절차가 복잡했다. 직장인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은 6시 이후였는데 센터는 6시에 문을 닫아야 했다. 그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더욱 절실했었던 것 같다.

■ 방향성에 대한 조언

- 백현주(독립기획자)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합의된 하나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불가능 할 것 같다. 각자가 생각하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전시회, 공모전 등을 통해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이상이나 가치는 어떤 것인지, 문화예술인들만의 고유함을 나타내는 특질을 정의 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함께 해나가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
- 백현주(독립기획자) : 이런 자리를 통해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좋겠다. 이 자리가 의미가 있어야 사람들이 계속해서 올 것이다.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처럼 다양한 예술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고 이야기 해본 적이 처음인 것 같다. 문화예술인들의 까다롭고 예민한 특성들이 행정을 향할 때 더욱 강렬해질 때도 있는데 그런 지점을 찾지 못했던 고무적인 만남이었다. 이 모임을 잘 지속해나가길 바란다.

# 02

## 공적 공간자원 이해

우만종합사회복지관

## 02

### 공적 공간자원 이해

#### 1 개요

**일 시** 2022년 11월 2일 수요일 14:00 ~ 17:00 (3시간)

**장 소** 우만종합사회복지관 3층 강당

**활동인원** 코코코 최윤주, 이하윤, 전지선 (3명)

**참여인원** 우만종합사회복지관 한솔 팀장, 남창초교 김봉수 교장,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 장유화 부회장, 문화예술교육가 및 관계자 9명, 수원문화재단 김유리 팀장, 박지원 차장 외 2인 (16명)

**내 용**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공공기관의 거점공간 활용방안 논의

#### 2 개최 및 인사

##### ■ 참여동기 및 인사

- 김유리(수원문화재단) : 작년부터 수원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하나씩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왔다. 작년에는 예술교육가 및 단체들과 함께 네트워크 모임을 가지면서 무엇이 필요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로 시작을 했고 그 안에서 공간에 관련된 이야기가 대두가 됐다. 예술교육팀에서 문화 공간을 대여섯 개 정도 운영 하고 있다. 직접 운영을 하는 곳도 있고 간접적으로 운영을 하는 곳도 있는데 예술교육을 위한 거점공간으로서 이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해왔다. 시민 예술교육 중에 소외계층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역 내 복지기관들과 연계해서 진행 해왔다. 앞으로 예술교육팀과 함께 수원의 문화예술교육을 함께 이끌어 나갈 주체들이라는 생각에 기관담당자들과 서로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우만종합사회복지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우리 기관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 양모 펠트로 인형을 만들고 그림 그리는 일을 하고 있다. 정자동에서 공방을 운영 중이다.
-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다. 사실 오늘 회장님께서 참여하실 예정이었는데 급한 일정이 있어 대신 참석하게 되었다. 우만동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 하고 있다. 이 사업의 취지를 정확히 모르고 담당자 분이 편안하게 오면 된다 해서 왔는데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좋은 취지로 모이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 시각예술과 일러스트 쪽으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 수원의 문화예술 거점공간과 관련해서 네트워크 모임을 진행한다고 하셔서 재미있을 것 같아 참여했다.

- 우리단체는 예술인 단체는 아니지만 교육단체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선생님들을 파견하는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작은 단체여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궁금했고 우리의 선로를 찾고자 대표님을 대신해서 참석하게 되었다.
-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시민기획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획자로서 공간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에 문화재 야행을 진행하면서 공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실무자로서 공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고 싶었고 소외계층 교육에도 관심이 많아 참여하게 되었다.

### 3 발제

- **우만종합사회복지관(한솔 팀장)**
  - 우만종합사회복지관 현황
  - 프로그램 및 공간 소개
- **남창초등학교(김봉수 교장)**
  - 남창초등학교 현황
  - 문화예술교육의 지향점
-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유화 부회장)**
  - 수원시 아동센터 현황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한계

### 4 질의응답 및 토론

- **우만종합사회복지관**
  - 한솔(우만종합사회복지관) : 문화재단에서 가장 화두로 두고 있는 부분이 거점이라고 하셨는데 사회복지계에서도 거점, 통합, 연계, 네트워크가 키워드이다. 우리 기관은 사람, 공감, 관계를 염두 해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어느 다른 기관보다 열린 공간이라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다. 누구나 이용 가능한 시설로 다양한 공유 공간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개방 하고 있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 수급자나 독거노인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으로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보다는 취약계층, 장애인, 노인층에게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취약계층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을 함께 운영 하고 있다. 그에 따라 다양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기관 내에서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등 지역기관들과 연계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 담당자로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강사인력을 구하는 것이다. 블로그를 통해 알아보는 것에 한계가 있고 어디에서 강사님들을 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 최윤주(코코코) : 수원에 5개의 사회복지관이 있고 사회 복지에서도 연대와 관계망,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올라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실상은 어떤지 궁금하다.
  - 한솔(우만종합사회복지관) : 5개의 사회복지관들과의 연합과 네트워킹은 잘 되고 있다. 문화예술 측면

에서 기관들마다 동일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 해오고 있다. 반면, 사례관리나 조직화 부분은 미흡한 것 같다. 예를 들면, 강사님이 연무복지관에서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복지관에서도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복지관만 있는 게 아니라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등 관련 기관이 많은데 한 분의 강사님이 모든 사회복지관에서 활동을 하시는 것 보다는 다양한 강사님들이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 최윤주(코코코) :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의 기관 이용현황은 어떠한가.
- 한솔(우만종합사회복지관) :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다. 시민 정보화 교육이라고 해서 디지털 배움터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교육에 대한 욕구가 있으면 교육장으로 찾아오시는 편이다. 지역주민들의 경우에는 바우처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쪽으로 집중이 된다. 퍼센테이지로 말씀을 드리면 3단지 주민 이용률이 70%, 외부 이용률이 30% 정도 되는 것 같다.
- 수원시에서는 복지관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 우만종합사회복지관도 실질적으로는 여러 동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데 특히 복지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동이 자유로운 분들이 아니라고 봤을 때 동네마다 하나씩은 있어야 할 것 같다. 여기에 대한 논의나 전망은 어떠한가.
- 한솔(우만종합사회복지관) : 지난 금요일 공동 학술대회에서 해당 이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쟁점 사항은 예산인 것 같다.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지만 공급과 수요만으로는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예산에 있어서 방향이나 전망을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조심스럽다.
- 박지원(수원문화재단) : 예술 치유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접근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과연 어떤 치유적인 혜택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될 부분이다. 담당자로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보다 취약계층 대상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있었고 복지관 측과도 함께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예산도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좀 더 잘 잡히는 편이다. 현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사업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두 가지 축으로 가고 있는데 서로 많이 협력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치유적 관점과 복지적 관점이 있는데 실제로 문화 복지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0년도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할 때에 기준점이 필요했었다. 보통의 중산층 가정에서 누리는 것에 대한 기준을 토대로 취약계층에게 지금까지 지원해 온 것들을 취합하여 그들에게 문화적인 소비를 일정부분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잡고 진행을 했었다. 첫 출발점을 잘 잡아야 된다. 복지관에서는 복지관에 오시는 주체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동시에 재단에서는 일반적인 문화예술 향유 기준을 무엇으로 잡을 건지 그 기준이 있어야 한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뮤지컬을 본다 혹은 영화는 한 달에 한 번 본다 등의 기준 설정이 되어야 그 기준에 맞춰서 정책을 펼칠 수가 있다. 복지관과 재단이 같이 가려면 재단에서 정책적 방향이 나오고 복지관에서는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좋아하는 것, 누리고 싶은 것들, 놓치고 있는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 김유리(수원문화재단) :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브릿지 사업이 있는데 처음에 잘 몰랐을 때는 소외 계층 예산은 깎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잘 해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기획예산이 있고 지원 예산이 있는데 다 합해도 2,500만원 정도 된다.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더욱더 연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단에서도 소외계층에 대해 직접적으로 찾아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어 연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예산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 1년에 세 군데 정도, 많아봐야 6군데 정도 연계를 하게 된다. 기관마다 목표나 기대가 다르실 텐데, 이를 알면 어떻게 연계를 해나갈 수 있을지 촘촘하게 계획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와 연계를 한다고 했을 때 기대하시는 바나 생각 해 오셨던 점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싶다. 다른 기관에서도 어느 정도는 공통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 한솔(우만종합사회복지관) : 기대하는 바로는 기획부터 함께 이야기를 한다면 좋을 것 같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예술의 바운더리가 한계가 있어 함께해 주시면 굉장히 확장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갈증이 있다. 복지관 담당자로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면, 취약계층에게 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나 의구심을 가지거나 이미 많이 지원되고 있지 않나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을 신체적인 장애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일반 시민보다는 분명히 제약이 있다. 복지관에 나오시는 게 그분들에게는 곧 사회적 활동이다. 건강상의 어려움도 있지만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나가지 못하거나 은둔형 외톨이, 1인 가구도 많다 보니 사람과의 교류가 닫혀져 있다. 결국에는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지 않나. 그 매개가 문화와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문화예술을 통해 일단은 나오시게끔 해서 사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더욱더 거점 기관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이 조금 더 세워지면 좋겠고 많이 알려지길 바란다.
- 남창초등학교
- 김봉수(남창초등학교) : 남창초등학교는 1954년에 개교를 했다. 수원 남문에 소재하고 있고 수원에서 가장 작은 학교이다. 1998년 영통개발로 인해 지역 인구수가 대거 줄어들면서 폐교의 위기를 겪기도 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2010년부터 노력한 결과 2013년도 혁신학교가 되었고 2014년도에 아토피 특성학교가 되었다. 남창초등학교는 역사, 문화예술, 생태적 자원, 지역 시장 등 모든 자원을 다 갖추고 있다. 폐교 위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인 것은 문화예술교육이다. 학교에는 아토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나 국적 자체가 중국 국적인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소외계층의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 보편적인 학교에서 볼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를 넘어 마을로 나가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확장하고자 했다. ‘학교가 마을로, 마을이 학교로’라는 모토로 마을학교 등 지역의 공방들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해왔고 ‘마을학교 프로그램 인증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제도적 시스템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일상이 예술로, 예술이 일상으로 가는 지향점을 위해 예술가 상주 프로젝트를 기획해 보고 싶다. 학교 내부에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을 위한 작업 공간을 만들어 예술가들에게 내어주고, 아이들에게는 일상에서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고 싶다. 우리 아이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삶속으로 스며든다면 복지 차원을 넘어 더 큰 향류의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 남창초등학교는 개방적인 시도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른 학교들은 어떠한지, 방과 후 과정이나 학부모님의 욕구나 수요들은 어떤지 교육현장의 실체가 궁금하다.

- 김봉수(남창초등학교) : 학교는 마을의 섬이라고도 하듯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교육은 보수와 안정성의 축과 변화와 혁신의 두 가지 축으로 가야하는데 현 교육현황에서는 구조적으로 모든 책임이 교장에게 지어지기 때문에 교장 입장에서는 외부인의 유입을 최소화하고 싶어 한다. 다른 학교들은 아마 불가능 할 것이다. 만약 하고 싶다면 저를 찾아오길 바란다. 다른 학교와 연결을 시켜줄 수 있을 것 같다. 방과후 과정과 관련해서는 학부모님들의 요청을 받아 신청자가 15명 이상이 되어야 유지가 된다. 돌봄의 경우 오후 7시, 8시까지 저녁 돌봄반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는데 담당선생님들이 그 시간까지 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담 돌봄 선생님들에게 업무가 이관되어 운영된다.
- 최윤주(코코코) : 남창초등학교 이외의 학교는 예술가나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 아까 학교 안에 예술가 상주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 안에서 시도해볼 수는 없다.
- 김봉수(남창초등학교) : 시 자체적으로 예술가들이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화성사업소에서 다양한 공간을 매입 하고 있는데, 매입한 공간을 애매하게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쓰려고 했는데 공무원이 상주해야 하니 주민들은 6시 이후에 필요한 상황인데도 6시 이후에는 쓸 수가 없다. 대표적인 탁상 행정의 사례이다. 본인이 시에다가 계속 이야기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술가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달라는 것이다. 장기임대 형태로 제공해주면 충분히 모일 것이다. 현재 장안동 같은 경우 지동시장 옆 수원사라는 절 인근으로 시장 안에 옛날 간판들이 그대로 있다. 간판은 그대로 두고 상점 안을 예술가들의 공간으로 두면 예술가들은 그 공간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판매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도 있고 주민들은 오며가며 둘러볼 수 있을 것이다. 예술인들이 어느 장소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생계가 유지되도록 정책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
- 경기문화재단에서 진행했었던 사업 중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사업이 있었다. 지평 오일장에서 예술가들이 장을 서고 예술작품을 판매하는 활동을 했다. 그런 접점을 만들어주는 기획자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변에도 옛날 간판 그대로인 가게들이 많다. 그런 곳들을 임대해서 주기적으로 활동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장애만 몇 번 서본 것이 다여서 아쉬움이 있었다.
- 김봉수(남창초등학교) : 수원 남문시장 1-3층이 모두 비어있다. 남문은 수원 어디서든 버스가 한 번에 온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기 좋은 위치이다. 시와 협약을 하여 시장에 비어있는 공간을 레지던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 수원시지역아동센터

- 장유화(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 : 수원시에는 64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수원아동센터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센터는 55개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 처우가 매우 안 좋다. 20년, 25년 근무를 해도 최저임금의 상태이고 예산이 현저히 적다. 전체 운영비가 145만원에 불과하다.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싶은데 이 금액으로 프로그램 강사를 섭외해서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을 요청하거나 공모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한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것도 어렵지만 선정이 되어도 강사를 섭외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문화재단에서 적당한 강사들을 센터와 연결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면 좋겠다. 아동센터의 아이들은 대부분 취약계층이다. 학원도 거의 다니지 않고 있어 학습뿐만 아니라 문화체험, 악기 등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

터 직원들이 배워서 알려주기도 한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상황으로 외부 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들이 정말 절실하다. 현재 우만동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 프로그램 이외에도 문화프로그램, 정서지원 프로그램,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왔고 특히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예술 계통에 계시는 분들과 조인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아이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 지역아동센터에서 프로그램 진행에 적절한 시간대는 언제인지, 또 몇 회기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한지, 회기 당 얼마의 시간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지 궁금하다.
- 장유화(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 : 어떤 예술프로그램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다. 인원과 세부적인 사항을 알아야 말씀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회기 당 1,2시간 이상, 기간은 3개월 정도 지도해주면 좋을 것 같다. 강사료뿐만 아니라 재료가 들어가게 되면 비용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센터 아이들에 대한 이해이다. 지역아동센터의 특성상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많다. 강사의 말 한마디에 아이들은 많은 상처를 받는다.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고 그 때문에 강사들에게도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 박지원(수원문화재단) : 브릿지 사업을 담당 했었을 때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했었는데 장소도 협소하고 집중을 못하는 아이들도 많아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복지센터 아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이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 **공적공간과 문화예술가들의 연계 방안**

- 최윤주(코코코) : 이야기를 들어보면 복지관이나 아동센터에서 니즈들이 충분한데 그렇다면 문화예술가들은 이런 기관들과 어떻게 연결이 이루어 질 수 있겠는가.
- 개인적으로 수원문화재단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도 보면 국가단위에서는 아르떼가 한다. 기초단위는 법적으로는 규정돼 있지 않지만 대부분 지역 단위는 재단이 맡고 있는 걸로 안다. 중앙에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는데 기초로 갔을 때는 아예 관심이 없다. 쉽게 말하면 기초단위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예산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인다. 각각의 대상이 있는 복지관, 학교 관계자들이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해서 서로 집중을 하고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나눠주는 형태로 가야 하는데 수원문화재단은 그게 쉽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본다.
- 김유리(수원문화재단) : 작년에 교육청 모임에 참여했을 때 예술 강사들을 재단에서 소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점점 재단에서 그 역할이 생기고 있는 것 같다. 현재는 이렇다 할 강사풀이 마련되어있지는 않고 지원사업에 참여하셨던 혹은 참여하고 계신 예술강사 분들 밖에 없는 실정이여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 우리는 예술을 도구로 교육을 하고 있고 예술가로서 예술을 가르치는 집단은 아니다. 문화예술교육에서 우리의 포지션이 애매하다. 이런 상황에서 인력풀에 포함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 알음알음 꾸려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쉽지 않다. 문화재단에서 취합하시려는 인력풀에 대한 기준이 조금 너그러웠으면 한다.

- 시민문화강좌를 서너 개 정도 운영하고 있다. 가르치는 분들은 전문가들이고 배우는 분들은 4~50대 중년여성들이 많다. 열심히 배우다보면 강사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들을 하고 있다. 이런 분들에게 기회를 주어 지역 안에서 인력풀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 최윤주(코코코) : 인력풀을 구축한다 하더라도 데이터를 만드는 것조차 모르고 있어 누락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이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 져야 할 것 같다. 만드는 것과 별개로 정말 활용 가능한 정보가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다. 이것이 서랍 속 데이터로 남지 않고 실질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는 데이터가 되려면 어떻게 구축하고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오늘 이야기 되었던 공간들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하려면 어떻게 문을 두드릴 수 있는지 궁금하다. 문화재단이 기관과 문화예술교육을 공급하는 개인과의 다리가 되어준다면 좋을 것 같다. 개인이 직접 기관과 컨택 한다고 했을 때 개인이나 작은 단체들에게도 공간사용이 개방적인 편인가.
  - 기관장님의 역량과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관이 가능하다. 재단과 같은 기관들과 협약을 맺고 진행 한다면 더욱 좋을 것 같다. 이러한 네트워크 모임들을 자꾸 만들고 참여하여 협업을 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
  - 박지원(수원문화재단) : 개인의 차원에서 지원을 바라는 예술가들이 많이 있는데 모든 작가들을 지원해 주기는 어렵다. 재단 자체에서도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고 공간에 대해서도 대관을 진행하고 있다. 화성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공간 대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수원문화재단도 111CM에서 청소년 동아리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지원 사업들을 많이 활용한다면 좋을 것 같다.
  - 최윤주(코코코) : 공간에 프로그램을 맞추게 될 때가 있다. 참여자들에게 최상의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하면 공간의 상황에 따라 포기해야하는 부분도 생긴다. 공적공간의 경우, 다른 사람들과 수요가 부딪히는 경우도 흔하다. 각 문화예술 분야에 따라 활용하기 적합한 공간들이 데이터화 되면 좋을 것 같다. 무엇보다 야간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적공간들이 필요하다. 거의 대부분 찾아보기 힘들다.
  - 새수원지역아동센터에서 인형극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었다. 지역아동센터공간은 매우 협소한데, 어떤 곳은 가정집인 경우도 있고 아이들이 한쪽에서는 공부를 하고 한쪽에서는 인형극이나 놀이, 악기연주를 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어 그곳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교육을 진행했던 적이 있다. 작은 공간이다 보니 수업을 진행한다거나 누군가에게 대관을 해주는 것이 애매하기도 하다. 그렇지만 마을 안에는 곳곳에 이렇게 작은 공간들도 있고 이런 공간들을 찾아서 활용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각자의 역할 및 태도**
- 평생학습관에서 인문분야의 북토크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학습관 직원이 우리가 하던 책모임에 참여하면서 시민들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 직원의 가치관과 소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자리에 실무자들이 많이 나와서 연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

- 각 기관들이 예술가들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예술가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각 기관들의 필요를 느끼고 문화예술가로서 생각을 나누는 경험이 정말 뜻 깊다고 느낀다. 예술가들은 직관적이고 감각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다. 어떠한 가치를 달해야 하는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공동체에게 아주 중요한 소속과 연대감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서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 하면 그 지점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 한다.
- 예술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단체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코딩을 가르쳐서 사회의 인력을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다. 어떤 때는 강사들이 머리를 쓰다듬거나 하는 것들이 성희롱 문제로 이어질 때가 있는데 교육자도 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배려나 자세도 중요한 것 같다.
- 예술교육은 사람들에게 예술에 대한 기술을 가르쳐 준다고보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예술을 끌어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렵고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라 일상에서 연결되는 예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예술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 제 경우에는 지인 소개로 예술교육활동을 한다. 최근에도 지인을 통해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 센터나 학교와 같은 기관과 예술가 기획그룹과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문화재단에서도 잠깐 일을 했는데 아는 작가 분들에게 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소개해 주기도 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네트워킹이 안되면 많은 작가, 예술가들이 모르고 지나가게 된다. 예술교육을 진행 했을 때 재료나 장비들을 챙겨가서 교육을 해야 하는데, 일회성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다. 참여자들과 예술가들의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함께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
- 박지원(수원문화재단) : 재단은 순환보직제로 담당자들이 자주 바뀐다. 담당자들이 그동안 쌓여왔던 경험들이 다른 담당자에게 넘어가면 휘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말씀하신대로 담당자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사업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이기도 하다. 예전에는 예술교육팀에서 강사들과 일을 많이 했다면 요즘에는 기획자들과 일을 많이 하는데 사람이 없다. 수원은 예산이 적어 강사들이 많이 떠난다. 그랬을 때 강사를 키워야 하나 기획자를 키워야 하나 고민하게 된다. 좋은 기획자들과 함께 좋은 강사진들이 꾸려진다면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강사나 기획자나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03

## 수원도시재단 사례

행궁동 어울림센터

## 1 개요

- 일 시**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 14:00 ~ 17:00 (3시간)
- 장 소** 행궁동 어울림센터 2층
- 활동인원** 코코코 최윤주, 이하윤, 전지선 (3명)
- 참여인원** 수원도시재단 허현태 센터장, 문화예술교육가 및 관계자 7명, 수원문화재단 박지원 차장 (9명)
- 내 용** 수원 도시재단의 공간 자원에 대한 이해 및 토론

## 2 강의

- 수원 도시재단의 공간 자원에 대한 이해(수원도시재단 허현태 센터장)

## 3 질의응답 및 토론

- 수원도시재단 공간에 대한 질문
  - 어울림센터 운영 공간 대부분이 비어있던데,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나?
  - 허현태(수원도시재단) : 1층에 카페 공간은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용 수입 통합 형태로 그분들이 인가를 받아간 상태이다.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갈등도 있었고 지금은 해결이 돼서 재 오픈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다. 나머지 공간들은 프로그램 및 대관신청이 없기 때문에 비어 있다. 지난주까지는 매주 대관이 있었다. 현재 프로그램들이 끝난 상태라 그렇다. 또 시기적으로 현재 수원시 예산이 마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센터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 주민자치센터 공간과 도시재생사업에서 제공하는 공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 허현태(수원도시재단) : 사업에는 다 경계가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생활권들에 속한 주민들이 참여하고 활동한다. 다른 지역에서 오는 분들을 배척하거나 하는 기제들이 작용할 확률이 높는데, 이를 방지하는 것이 숙제이다. 마을협동조합은 주민들이 같이 노력해서 스스로 만들어 나가도록 필요한 공간을 구성해 놓은 것이다. 이 공간들이 주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사용되어 지길 지향하고 있다. 둘이 서로 완전히 다르진 않다.

- 질문의 내용은 운영주체가 누구이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다. 시설과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명확해야 문화예술교육의 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 허현태(수원도시재단) : 말씀드렸듯이 운영주체로서는 사회적 협동으로 구성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공간을 운영하기를 지향하고 있다. 그 지향점이 달성이 되면 좋는데 대부분 역량의 한계로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큰 관리체계를 말하자면 수원시에서 수원도시재단이라는 곳에 일률적으로 관리 위탁을 준 형태로 수원도시재단에서 운영 하고 있다.
- 공연 기획 쪽으로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공연이나 전시를 하기 적합한 곳이 있는지 궁금하다.
- 허현태(수원도시재단) : 무엇을 정확히 원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가 적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애매하다. 공연의 경우 방음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매산동에 오픈된 공간이 있다. 계단 형태로 되어있는 공간이 있어 자연스럽게 관중석이 형성 될 수 있다. 어울림센터도 이야기가 된다면 활용할 수 있다. 공연이나 전시라고만 한다면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알 수 있다면 공간들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매칭이 가능할 것이다. 어디서 어떻게 예술할까라는 주제에서 '무엇을' 이라는 것은 이미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한다. 그 '무엇을' 이야기 해준다면 '어디서'라는 물음에 좀 더 적합할 만한 공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 ■ 장르별 공간 매칭 활성화 방안

- 최윤주(코코코) : 공연하는 팀들 중에도 다양한 장르를 가지고 있고 세부적인 니즈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매칭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잘 매칭이 되려면 어떤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는가. 문화재단에서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있는가.
- 문화예술인들이 바라는 공간은 크게 창작 공간과 발표 공간인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창작 공간에 대한 문제는 일단 배제하고 장르에 따라 어떤 공간에서 발표가 적합한가에 대해서 매칭이 잘 이루어지려면 문화재단에서 화성 사업부가 가지고 있는 공간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수요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 부서별 담당하는 관할 기관이나 공간이 각각 다른데 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 공간에 대한 모든 자료가 수집돼서 하나로 모아질 수 있다면 자신에게 적합한 공간을 찾기 수월할 것이다.
- 코로나 단계가 올라가게 되면 공적 공간 대관이 어려울 것 같아 민간 공연장을 대안으로 알아보려고 수원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갔었던 적이 있다. 공간들이 어느 정도 아카이빙이 되어 있었고 공간자원 정보를 보고 대처할 수 있었다. 그 자료들이 분야별로 예를 들면 전시를 위한 공간, 공연을 위한 공간 등으로 카테고리화 되어 정리가 되어 있으면 더 쉽게 필요한 공간을 매칭할 수 있을 것 같다.
- 문화예술교육 기획은 어디서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도시재생 공간자원 또한 공연과 전시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그 이전에 각 예술분야별 니즈를 파악하고 어떤 공간들을 매칭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또한 공공 공간이 아니더라도 동네 안에 무언가를 이용하고 기획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품을 팔아서 그런 공간들 까지도 발굴해내고 공유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 박지원(수원문화재단) : 공간에 대한 정보가 정리가 되어있지 않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주민자치센터 회의실 등의 공공시설을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저 또한 올해 처음 알게 된 사실이어서 시민들이 많이 모르실 것 같다. 이를 위한 디지털 아카이빙이 필요할 것 같다.
- **문화예술교육 거점으로서 수원도시재단 공간 활용 방안**
- 도시재단의 공간을 지역주민이 아닌 사람들도 쉽게 사용이 가능한가.
- 허현태(수원도시재단) : 공간에 따라 신청하면 모두 쓸 수 있고, 현재까지는 대관료는 없다.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사무실에 직접 전화하시고 양식을 작성하는 방법도 있다.
- 공유공간들과 도시재생에 의해 만들어진 다양한 공간들이 그 공간을 이용할 주체들에게 홍보가 덜 되어있다는 생각을 했다. 삼일중, 매향정보고, 삼일공고 등의 인근 학교와 연계해서 교사들에게 공간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수원시 관내 비보이, 음악동아리 등으로 홍보를 해서 이 공간들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떤가. 문화예술인들에게는 문화재단에서 학교 입장에서는 교사연수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 같다.
- 허현태(수원도시재단) : 공모사업을 통해 홍보를 하기도 한다. 찾아가는 홍보에 있어서는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홍보는 해도 해도 부족하다. 현재 갖고 있는 툴, 홈페이지, SNS 등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파급정도가 널리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아쉬운 부분이다.
- 박지원(수원문화재단) : 재단에 부서가 굉장히 많은데 문화예술관련 업무 부서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 안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활용 가능한 시설들이 적다. 그래서 도시재단의 공간들이 부럽다. 문화예술교육관련 일을 할 때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기반사업들이 더 많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다. 우리가 공간에 대해 고민해보고 그 공간을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이 공간에 대해 특성화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도 함께 이야기 해보면 좋을 것 같다.
- 인형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17년도에 이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작업실이나 공간이 없었고 수원시 청바지 공간도 보고 성남에서 운영하는 경기 콘텐츠 코리아엠이라는 공간도 보고 경기문화재단의 공간도 보았다. 예비창작자들 입장에서는 기관에서 제공해주는 공간이나 서비스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된다. 경기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상상캠퍼스에서 2년 정도 활동하면서 예비 창작자로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지원 사업 초반 멤버로 다양한 혜택을 받았는데, 도시재생 공간에서도 창업을 위한 공간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공간에서 문화예술가들이 지속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장기적인 지원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 허현태(수원도시재단) : 문화예술의 거점공간은 다양할 것 같다. 창작공간보다는 전시공간이 좀 더 적당할 것 같고 창업을 창업까지 연결하는 부분도 가능할 것 같다. 기존 입주주민들의 이주가 늦어져 아직 건물이 생기지 않았다. 공간이 생긴다면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서 공간 지원 및 활용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사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다.

■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 최윤주(코코코) : 우리에게는 어떤 공간 혹은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가.
- 제 경험에서는 공간도 좋지만 기획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술가들에게 장소들을 매칭해 줄 수 있는 기획자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공간들이 많은데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특화된 공간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공간이 있다면 공간에 대한 홍보를 특별히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인들이 모이고 재미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상상캠퍼스 같은 경우 공간이 잘 꾸며져 있었는데 예술인으로서 이 곳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공간을 알게 된 경위는 주변 동료, 예술인들의 입소문으로 알게 되었다. 이런 입소문들이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최윤주(코코코) : 공적공간에서도 재미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이 충분히 진행 될 수 있는 무대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예술인들의 경우 공적공간을 기피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다.
- 공공기관이라고 예술가들이 기피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같이 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다. 같이 할 수 있는 꺼리가 있다면 공공기관 또한 사용할 것이다.
- 공공기관이 많다는 것을 이 모임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이런 공간들을 알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작가, 교육가 등이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 같다.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여주고 싶은데 개인적인 사비나 비용들이 많이 든다. 이런 부분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 같다.

■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을 위한 제언

- 최윤주(코코코) : 이 공간을 만들기까지 주민과의 만남의 횟수, 실무자와의 만남의 횟수들은 어마어마했을 것 같다. 앞으로 문화예술인들의 거점을 만들고 느슨한 연결망들을 만들어나가는 선상에 있는데 이미 어려운 길을 가보셨으니 이를 구축해 나가면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허현태(수원도시재단) : 도시재생강의를 주민들에게 할 때 꼭 들어가는 슬라이드가 있다. 첫 번째, 사라진 것들에 대한 것, 두 번째, 과일가게(주민들은 각양각색이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다양한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한정되어 있는 재원으로 어떻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이끌어내느냐가 숙제가 된다. 결국은 나중에 투표를 하게 된다. 그 방법을 쓰면 사람들이 재미있게도 인정을 한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벽과 문이라는 그림과 시를 이야기 한다. 결국에는 서로 각각 다르더라도 의견이 맞지 않아도 벽처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문을 내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은 선택적인 것으로 닫고 싶을 때 닫고 열고 싶을 때 열 수 있는데, 주민들에게는 계속 열려있는 문을 놓아주고 싶다. 도시재생 거점공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1인 크리에이터실은 주민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공간이다. 그러나 문화예술인들이 요청해서 만들어진 공간은 하나도 없다. 문화재단에서 이런 공간을 쉽게 만들 수 있느냐 하면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이다. 문화재단은 시설 사업이 거의 없고 프로그램 사업이 주이기 때문이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디서 펼칠 수 있는지 찾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지역 안에 어딘가는 있을 것이다. 이 프로세스가 도시재생에서도 똑같이 적용 되고 있다.

- 최윤주(코코코) : 문화예술인과의 연결고리도 많이 있고 중간자, 매개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논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 허현태(수원도시재단) :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그 논의가 공론화하려면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들어야 한다. 최소한 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들어야하고, 수원시장이 들어야 움직인다. 쉽게 말해 ‘표’가 되어야 움직인다. 문화예술인들의 세력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본다. 예술인들의 바람과 논의를 정리할 때 좀 더 조직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더 영향력 있는 분들이 오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 박지원(수원문화재단) : 결정권 있는 분들이 오셔야 하겠지만 이 이야기들을 모아 내년도에 이어서 이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 한다. 현재로서는 의견들을 모으는 작업들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 아쉬움이 크다. 의견들이 모여야 그 힘을 가지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04

수원문화재단 공간과 민간공간

복합문화공간 111CM

#### 1 개요

- 일시**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14:00 ~ 17:00 (3시간)
- 장소** 복합문화공간 111CM 다목적실
- 활동인원** 코코코 최윤주, 이하윤, 전지선 (3명)
- 참여인원** 살롱시소 박진형 대표, 솜수프스튜디오 강민아 대표, 뮤지엄스튜디오 안성경 대표, 문화예술교육가 및 관계자 8명, 수원문화재단 김유리 팀장, 박지원 차장 (13명)
- 내용** 복합문화공간 111CM 활용 방안 및 시민에게 공간이 주는 의미

#### 2 복합문화공간 111CM 공간 소개

- 복합문화공간 111CM 공간 소개(수원문화재단 김유리 팀장)
  - 111CM 역사
  - 111CM 구조 및 설계 과정
  - 전과 후 모습
  - 공간 둘러보기

#### 3 복합문화공간 111CM 활용 방안

- 111CM에 대한 소감 및 의견
  - 앞뒤로 확 트여 있어 개방적인 느낌이다.
  - 3월에 처음 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멋진 공간인데 아무것도 없는 도화지 같은 느낌이 들었다. 여기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전시 공간에서 전시를 하고 싶다.
  - 음악활동으로 활용이 적당한 공간은 아닌 것 같다. 세련되고 잘 정비되어있는 카페 같은 느낌이고 시민들이 향유하기에는 좋을 것 같다. 파티션이 세워져있지만 마감이 안 되어있어 소리가 밖으로 나올 것 같고 다른 분들에게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이다.
  - 93년도부터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곳의 소재를 쭉 봐왔는데 공사현장이 이렇게 꾸며졌다는 것이 신기하다. 주변 산책을 한 적은 있지만 안까지 들어오기는 선뜻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다. 막상 안에 들어와

보니 밖에서 보여지는 것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현재 발달장애인들 예술가 작품을 전시 하려고 하는데 전시공간으로 적당할 것 같다.

- 금일 111CM을 처음 방문했다. 이 곳을 찾아오는 것 자체가 힘들다.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다 보니 이 지역 주민들만의 공간이라는 인식이 들었다. 이 공간을 재창조해서 문화공간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 공간은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하게 하고자 하는 느낌이 더 강하고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공간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공연예술의 경우에 특히 더 진입장벽이 높아 보인다. 이 공간은 전시예술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시민들도 다양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이름처럼 복합문화센터라고 하기에는 장르가 복합적이지 않을 것 같다. 무대예술이나 실험예술가들에게는 메리트가 있는 공간은 아니다.
- 올해 3월부터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다. 이 공간은 너무 완성되어 있는 느낌이어서 예술가들이 이 공간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개입하기가 어렵다. 여기의 조명시스템은 현재 빔 화면을 보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가 없다. 밤 시간에 이 곳에서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몇 개월 동안 조정을 해봤는데 도저히 불가능했다. 예술가들 입장에서 공간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주어져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공간 자체는 말씀하신대로 개방적이고 실제로 매력적이지만 예술에 대한 지점에서는 닫혀있는 공간이다. 스타필드가 2023년 준공이 되면 접근성은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

#### ■ 문화예술교육 거점으로서 111CM 활용방안

- 김유리(수원문화재단) : 이런 문화 공간을 만들 때 함께 이야기 나누고 리서치 조사도 했다면 조금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협의나 논의 없이 오픈을 한 후 컨셉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장안구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많은 가족중심의 지역으로 아이들이 친숙하게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있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곳은 예술가의 창작공간은 아니다.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시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다. 문화예술을 매개로하여 시민들이 대화를 나누고 무언가를 만드는 공간이다. 생활문화나 시민중심의 공간이고 예술가 분들은 자신들의 예술 영역에서 조금 더 확산적으로 활동하며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야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된다. 시에서는 이곳이 활성화되길 바라고 있고 저희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중이다. 의견을 주신다면 함께 고민해보고 싶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타필드가 대각선상에 생기게 되고 이쪽 옆으로는 주차장이 생길 것이다.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내년 정도까지의 한시적인 고민이다. 그보다는 이 공간에 어떤 정체성 부여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다.
- 이 공간을 활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관을 할 수 있나.
- 김유리(수원문화재단) : 내년부터 정기로 대관을 진행할 예정이고 현재 수시로 대관을 진행 중이다. 문의를 주시면 하루 이틀 사용하시는 것에는 바로바로 대관이 되고 기간을 정해서 들어오고자 한다면 상반기에 일정을 잡는 것이 좋고 행사가 많은 시기에는 대관이 어려울 수 있다.

- 이 공간이 인식개선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현재 발달장애인 디자이너 양성을 하고 있는데 이 주변에는 학교도 있고 지역 주민도 있어 반가운 공간이다. 이곳에서 장애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 작업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
- 현재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개선이나 사회화 과정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것이 있는가.
- 발달장애인들이 디지털아트워크를 배워 작업물을 만들고 이를 전시 하고 있다. 전시를 관람하는 지역 주민들이 그들을 장애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한 사람의 작가로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전시도 여기서 하면 좋겠지만 오히려 그 작업과정이 여기서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만약 발달장애인들이 이 공간에서 작품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예상되는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 이동의 문제일 것 같다. 작업을 위해 이곳으로 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생각이다.
- 수원에서 이런 커뮤니티 공간이 생기는 것은 무조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공간을 이용하는 분들은 비슷한 사람들이 오는 것 같다. 문화예술이 폭넓게 펼쳐져서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면 좋겠다. 예술가들을 위해서는 레지던시로 활용할 수 있다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공간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 시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형태의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이 더 적당할 것 같다. 이 공간에서 플랫폼 사업들을 1년에서 2년 정도 해나간다면 그 과정에서 정체성이 잡힐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 111CM 공간을 둘러보면서 전시공간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 각각 라인마다 테이블들이 있었는데 가족들이나 이웃주민들과 함께 차를 마시거나 대화를 나누면서 공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
- 최윤주(코코코) : 문화재단 사업 중 인문클럽에는 일반 시민 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 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이 공간을 활용한 적이 있다.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자유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 111CM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멋지고 좋았다. 주변 아파트에서 바로 접근 가능한 공원 안 쪽에 위치해 있어 이 곳에 사는 사람들은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접근성이 좋아지면 여기 주민들은 반대로 싫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서 적절하게 조절이 되면 좋을 것 같다. 어느 정도 경계도 있어야하고 접근성도 있어야 할 것 같다. 이곳에서 사진수업과 사진전을 했었는데 결과물이 아주 잘나왔었다. 전시 공간으로서 독특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111CM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활동을 많이 접하는데 많은 예술가분들께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계신 것 같다. 그러나 좀 더 일관성 있는 컨셉으로 111CM만의 독자성을 챙겨서 나아가면 좋겠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주민들이 참여한 사업 중 반응이 좋았던 행사들을 중심으로 연속적으로 시행해보면 어떨까 싶다.
- 이 공간에서 공동의 문제의식 혹은 공동이 아니더라도 관심을 것 같다. 다양한 장르, 다양한 질문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만들어 나가면 재미있을 것 같다.

- 최윤주(코코코) :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예술 활동들이 이루어지면 재미있을 것 같다. 이곳에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느낌으로 가면 좋겠다.
- 시민들이 쉬어가는 공간들이 너무나 잘되어 있는 곳들이 많다. 각 장소마다 컨셉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곳은 ‘야경이 멋진 곳’ 이런 식으로 매력이나 특색이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도 좋겠다.
- 어디서, 어떻게 예술할까라는 네이밍을 보고 신청했다. 여기가 남녀노소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는 공간, 아무나 와서 전시를 하고 이야기 하는 공간이 된다면 내년에도 이 네이밍과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 공간들이 문화예술가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둘 수 있는 공간이어야 교육도 이루어지고 활동의 지속성도 생길 수 있다. 이 곳에 어떤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의 예술을 보기위해 사람이 찾아오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전시만 하는 공간으로 끝내고 싶지 않다면 이곳에서 어떤 예술이라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 상태에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공간에서 예술가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특정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특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공간에서 전시이외에 이루어진 예술이 없는 것 같다. 컨셉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이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이다.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하러 오는 공간이 될 것인지 예술을 즐기러 가는 사람들이 오는 공간이 될 것인지는 예술가들의 활동의 장이 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 질 것이다.

#### 4 민간공간에 대한 이해

##### ■ 살롱시소(박진형 대표)

- 공간 소개
- 공간 활용 사례

##### ■ 솜수프스튜디오(강민아 대표)

- 공간 소개
- 공간 활용 사례

##### ■ 뮤지엄스튜디오(안성경 대표)

- 활동 내용
- 공간이 주는 의미

##### ■ 민간공간에 대한 질의응답

- 최윤주(코코코) : 살롱시소는 홍보를 어떻게 하는가?
- 박진형(살롱시소) : 우리는 홍보를 굉장히 못한다.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중에 신인 뮤지션을 발굴하려는 프로그램은 티켓 가격을 매기지 않았다. 5년 동안 해왔고 알음알음 오시던 분들이 계속 오시고 있다. 콘텐츠 자체가 유명해서 쉽게 홍보가 된 거지 실제 홍보를 잘해서는 아니다. 어떤 곳이든 홍보의 한계를 느끼는데 최근 드는 생각은 예술가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면 좋을 것 같다.

- 최윤주(코코코) : 상상캠퍼스(공적기관)와 개인공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 강민아(숨수프스튜디오) : 상상캠퍼스와 같은 공적공간의 경우 무언가 시작하고 싶는데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한다. 동아줄 같은 느낌이다. 그곳에는 예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개발팀, 3D프린터 교육팀도 있었다. 작가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 배울 수 있었던 게 많았다. 나오게 된 이유는 개인적인 성향 상 혼자서 작업하는 것이 편해서 나오게 되었다. 개인 공간의 좋은 점은 혼자 집중해서 예술 하기에 좋다. 또 사람들이 쉽게 찾아 올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안내판이며 영업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공적 기관보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문턱을 높여 놓은 것 같다.
- 박지원(수원문화재단) : 공간을 거점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받아 본적 이 있나?
- 박진형(살롱시소) : 공간 지원사업은 받아 본적이 없다. 프로젝트 지원은 받았었는데 공간 지원사업을 안 받았던 이유는 게을러서 챙기지 못했다. 3년 전쯤 지원사업에 대한 회의가 생긴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지원사업에 목을 맨다거나 의지하게 될 것 같아 터부시했었다. 지금은 다시 마음을 잡고 열심히 하려고 한다.

## 5 질의응답 및 토론

### ■ 공적지원의 한계 및 방향

- 최윤주(코코코) : 공적인 영역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간이나 축제, 플랫폼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느끼는 문제점은 공공의 경우 보편 타당성이나 대중성을 피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인으로서 결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설계나 기본 시스템들이 남녀노소 광범위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할 수가 없다. 어느 정도 특정한 타겟층을 정하고 특정 세대나 취향에 맞게 기획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공간들을 지원해준다면 좋을 것 같다.
- 지원 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예술가들의 예술성을 터치하면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원사업에 예술가들의 예술성이 부여되는 느낌이다. 그래서 재미없는 것들이 나오게 된다. 예술가들에게 공간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공간을 위한 월세를 지원해주는 것은 호흠기만 달아주는 것에 불과하다. 2,3년 후에 디벨롭을 하고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 떨어져 나가게 된다. 근본적으로 예술가들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을 위한 지원들이 시급하다. 모두가 좋아하는 공간이 아니더라도 타겟층을 정해 누군가를 오게끔 하고 작가들을 홍보해 주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다.
- 공간을 지원해 주면 지원을 받은 작가나 예술가들은 처음에야 반갑고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네 마네 할 수 있지만 그 곳에 계속 머물 수도 없고 1,2년이면 금방 다시 숨이 막힐 것이다. 문화예술 공간이 활성화되려면 예술가들을 대중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예술가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이 작가들의 활동을 외부로 알리고 사람들이 와서 이

예술가들의 예술을 사줄 수 있게 만들어야지 월세지원으로는 예술가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박지원(수원문화재단) : 홍보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홍보를 아무리해도 사람들이 잘 안 모인다. 홍보라는 것은 정말 모두에게 어려운 것이다. 공감하는 부분은 예술가들이 모이는 공간이 된다는 것, 여기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해 볼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만들어 진다면 주변사람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지 않을 까라는 생각이 든다. 열심히 홍보해서 20명, 30명을 모집해도 결국 마지막 남는 것은 10명 그 이하이다. 결국은 문화예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민력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 예술가들은 기본적으로 자율성을 추구하고 기관은 안정성을 추구한다. 이 둘이 접점이 되는 지점은 거의 없다. 기관도 일정부분을 감수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수원에서는 예술가의 자유로움을 무책임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다. 변화의 지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유일하게 떠오르는 대안은 공공이 가지는 공간을 개방성,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열어주는 것이다.
- 기관 담당자로서 예술가들을 찾는 것이 너무 어렵다.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예술가들을 찾을 때 중요한 것은 예산이다. 말씀하신대로 안정성도 중요하다. 협동조합의 형태나 예술가들의 집단이 형성된다면 집단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이 이루어지고 기관입장에서는 예술가들에게 접근이 쉬워질 수 있을 것 같다.
- 작년에 문화예술 교육자 관련 모임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었다. 예술가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현재 문화도시에서 플랫폼 구축 사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 플랫폼이 하나 있긴 한데 그 곳에서는 예술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 무엇을 하는 예술가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식은 예술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내용들을 공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시간이 필요한 작업인 것 같다.
- 수원시민들이 직접 만든 영상들을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다. 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 들어갈 줄을 모른다. 수원 시민들이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어떤 정보를 찾는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문화재단 사이트나 SK아트리움 사이트를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그런 곳에 들어가도 연결될 수 있는 플랫폼이 없다. 개인적으로 왜 그런 공신력 있는 사이트에서 수원에서 하고 있는 예술가들에 대한 게시판조차 없는지가 궁금하다. 누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를 가야 알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이트나 플랫폼을 만든다 해도 어차피 들어가지 않는다. 이미 있는 사이트들에 링크나 연결지점을 만들어 준다면 홍보를 해주는 것 이상일 수 있을 것이다.
-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진행을 하면서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만들어보자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야기로만 그쳤다. 플랫폼의 중요성은 노출성 보다는 신뢰성이라는 생각이 든다. 말씀하는 부분에 적극 공감 한다.
- 박지원(수원문화재단) : 수원문화재단은 사업영역이 너무 많다. 구조적인 이해가 필요하실 수 있는데 사실 재단에서 안하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홈페이지 자체가 포화상태이고 그 곳에 무언가를 올린다는 것이 우리 또한 쉽지 않다. 문화예술에 대한 플랫폼이 따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언가를

아카이빙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홈페이지 자체에 너무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재단 홈페이지 내에서는 한계가 있다.

-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인 것 같다.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예산은 나오지 않는다. 단체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시의원들과 친해지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흐지부지되지 않으려면 권한 있는 분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그 분들이 시의원이나 더 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 최윤주(코코코) : 예술가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다. 그럴 때일수록 연대하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나. 개개인들은 각자가 여러 생각들을 갖고 있다. 공공기관들의 노력과 함께 민간영역에서도 목소리들을 모으기 위한 네트워킹 활동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6 소감

- 이런 자리는 생소했는데 이번에 18일부터 28일에 열렸던 문화 공간 프리메이커로 일하면서 111CM의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참여하게 되었다. 행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공간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았는데 이 자리에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 우리가 느끼는 것은 모두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예술가들이 스스로 이야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술가들도 스스로 지역에서 예술이나 문화교육을 할 때에도 자신의 이야기를 작품이나 예술로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모아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고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들을 많이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다.
- 제목에 꽂혀서 궁금해서 왔는데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서 담당자분들도 그렇겠지만 저 또한 고민이 많아진 것 같다. 각자 조율할 점, 접합지점을 잘 찾아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 오늘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분들의 고충을 듣게 되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111CM은 두 번째 방문인데 이 공간이 광장 같은 공간으로 남아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공연을 보다가 저기서 재미있는 걸 하고 있으면 옮겨가는 그런 장소이면 좋겠다. 주민들에게는 편안하게 거쳐갈 수 있는 공간이길 바란다.
- 공간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내년에 어떻게 해야 할 지 마음이 무거워 졌다.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울 수 있었다. 이 공간들이 조율이 되어서 특정인만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고 홍보가 잘돼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
- 공간을 지원받고 활동했을 때 번두리에 소외되었던 예술가에게 시민들을 만날 수 있던 기회가 생겼다. 공간지원도 좋지만 이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다. 공공기관에서 제게 그러한 역할을 주셔서 감사했고 많은 분들에게 그런 역할들이 주어지면 좋겠다.

- 최근의 예술은 소비되는 예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소비되는 예술이 아니라 몰두 할 수 있는 예술이면 좋겠고 여기서 굉장한 무언가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 김유리(수원문화재단) : 여러 생각을 하게 해주셔서 많은 고민에 빠졌다. 내년에 어떤 사업들을 할 때 오늘의 이야기들이 바탕이 되어서 개선점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말씀하신 부분들을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마지막 차시에도 편하게 오셔서 이런저런 생각하셨던 것들을 누군가는 들어주지 않을 까라는 마음으로 이야기 해주시고 꼭 참석해주시길 바란다.

# 05

## 거점구축 및 네트워킹의 방향성

푸른시대창작센터

## 05

## 거점구축 및 네트워킹의 방향성

## 1 개요

- 일 시**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 14:00 ~ 17:00 (3시간)
- 장 소** 푸른지대창작센터 전시실
- 활동인원** 코코코 최윤주, 이하윤, 전지선 (3명)
- 참여인원** 문화예술교육가 및 관계자 6명, 수원문화재단 박지원 차장 (7명)
- 내 용** 푸른지대창작센터 활용 방안 및 거점 구축에 관한 논의

## 2 푸른지대창작센터 공간 소개

- 푸른지대창작센터 공간 소개(수원문화재단 박지원 차장)
  - 공간 활용현황
  - 공간 둘러보기

## 3 푸른지대창작센터 활용 방안

- 창작센터에 대한 소감 및 의견
  - 예술가들에게 공간을 빌려주는 것은 큰 메리트이다. 크고 깨끗하고 좋은 시설이다.
  - 닫혀 있는 느낌이다. 사람들이 왔을 때 공간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 인데 쉽게 들르지 못할 것 같다.
  - 겉에는 허름한 느낌인데 안에는 깔끔하고 넓어서 좋았다.
  - 물리적인 공간자체만 보면 좋은데 닫혀있어서 내부를 보지 못해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레시던시라고 모두 닫혀있는 것은 아니다. 한군데 정도 오픈해 놓고 시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하는 곳도 있다. 이렇게 운영이 되면 작가들만 왔다갔다 하는 공간이 될 것이고 시민들은 오기 어려울 것 같다.
  - 공간이 넓고 깨끗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 공간에 대해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처음 오셨을 때 여기서 활동하는 작가나 공간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를 것 같다.

■ 문화예술교육 거점으로서 창작센터 활용방안

- 상상캠퍼스에 입주해 있을 때 입주 작가 입장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되게 싫었다. 그 곳에 일을 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었고 시민들에게 무언가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부분을 생각하고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 시민들이 문이 잠겨있는데 문을 열려고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불편함이 있었다. 주민들은 이 입주공간이 주민센터처럼 내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고 예술가들 입장에서는 작업 중인데 방해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서로 입장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상상캠퍼스는 큰 공간이 있어 예산이 주어진다면 그 곳에서 입주 작가들과 함께 전시나 마켓을 열기도 했다. 그럴 때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만나며 교류가 일어났었다.
- 이 공간에서 어떤 선생님들이 작업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입주 작가 선생님들 문 앞에 붙여져 있던 이력들을 봤는데 굉장히 화려했다. 그 분들이 작업했던 문 앞에 붙여져 있는 내용 중 일부라도 이 공간 내에서 오픈된다면 좋을 것 같다. 문화재단이나 공공의 재원이 투자가 되어 주어진 공간이라면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일정의 부분에서는 책임을 부여하고 주민들에게 나눠 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 개방형 레지던시에 대해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예술가가 이 공간을 알아서 잘 활용할 있도록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레지던시에는 어떤 제약이나 규약이 있을 텐데 예술가들이 보다 편안하게 협력하고 재미있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주는 것도 방법일 것 이다.
- 일반 활동가나 교육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거리감이 있는 공간이다. 일반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개방을 한다면 좋을 것 같다.
- 박지원(수원문화재단) : 말씀하신대로 일반 시민들에게는 이 공간이 굉장히 닫혀 있는 공간이다. 오픈하기 전에 자문회의를 몇 번 했었는데 작가들이 독립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고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포인트 때문에 개방하지 않고 공간을 닫아 놓았다. 작가 분들은 작업하기가 편하시지만 다른 작가님들과의 콜라보나 문화예술교육에서 부족함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 고민 중이다.
- 처음 이곳에 방문했을 때 이 장소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했었다. 전적으로 예술가를 위한 공간이다. 그것이 괜찮다면 그렇게 가면 되는데 공간 활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면 지금과는 형태가 달라져야 한다. 365일 오픈할 필욘 없겠지만 일주일에 1번 혹은 몇 시간이라도 시민들에게 오픈할 수 있을 것 같다.
- 최윤주(코코코) : 만약 개방을 한다면 시민들이 올 것 같은가.
-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니면 개인적인 관계들을 통해서 찾아질 것이다. 상상캠퍼스를 예로 들면, 상상캠퍼스가 그렇게 많은 공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이지 않았는데 알음알음 알다보니 점점 더 보여 지는 부분이 많아졌다. 한번 가고 두 번 가다 보면 많은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오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가고 싶을 만한 매력이 있다면 아무리 멀어도 사람들은 찾아간다. 접근성의 문제는 아니다. 학교 방과 후교실 등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조금씩 사람들을 모으고 알려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이다. 아이들이 “오늘 재미있었다.” 라는 이야기만 집에서 해도 부모님들은 관심을 갖게 된다. 너무 폐쇄적인 것은 예술가나 시민들 누구에게도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일정 기간을 설정해서 오픈데이처럼 운영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입주 작가들에게 공간제공에 대한 계약을 할 때 ‘1주일에 하루는 공간을 시민들에게 오픈 한다’는 등의 내용을 계약사항에 추가해서 작성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되면 좋을 것 같다.
- 박지원(수원문화재단) : 담당자로서 작가들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것과 시민들과의 접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 이 자리를 통해 제안해 주시면 좋겠다. 시로부터 행정감사를 받을 때 왜 여기를 닫아 두고 시민들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냐는 지적이 있었다. 그동안에는 예술인들의 작업 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에만 집중해 왔다면 시민들과 접점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 최윤주(코코코) : 두 가지가 공존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술가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공간을 어느 정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예술가들에게 왜 독립적인 창작공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수궁이 되는데 예술가들은 실제로 어떤 공간을 선호하는가.
- 자유롭고 강요하지 않는 공간이 좋다. 상상캠퍼스에 가고자 했을 때 중요하게 고려했던 점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동료의 있는지, 공간을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자율성이었다. 당시 이해가 잘 안된 것은 시민들과 함께 향유 하라는 점이었다. 내 일만 하고 싶었는데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라고 했다. 이런 부분들이 계약을 할 때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처음에 합의를 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요구가 들어오면 공권력이 개입된다는 느낌이 들고 자율성이 침해된다고 생각되는 것 같다.
- 최윤주(코코코) : 강요받지 않고 내 활동을 온전히 해 나가면서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접점이나 방법은 없을까?
- 제주도 현대카드에서 운영하는 레지던시에 가본 적이 있다. 그 곳은 공간자체가 유리로 되어있다. 공간이 텅텅 빈 한 느낌이었고 딱 채워진 느낌은 아니었다. 관계자분이 라운딩을 해 주셨을 때 작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서초의 호강그룹에서 운영하는 레지던시는 페스티벌처럼 일주일동안 열어두고 평소에는 작가들이 공간을 활용한다. 예술가들 사이에서도 서로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오픈되어 있다. 개방적인 공간운영은 작가들 마인드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다. 공적인 지원금을 받는 것에는 여러 가지들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개인은 공적 지원금을 받을 때 공익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온전히 자신의 공간으로만 사용하기 보다는 작가들과 서로 교류하고 시민들에게 오픈하며 얻어 가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 예술가분들 입장에서는 공공의 원리에 대해 잘 와 닿지 않을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중요한 것은 실적과 성과 측면인데 이 부분에 대해 작가들도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개방이 안 된다면 일정 공간이라도 작품 두 세 점 쯤 놓고 시민들과 나눌 수 있으면 어떨까 싶다.

- 글 쓰는 작가 입장에서 이야기 해보자면 본인도 집필을 할 수 있는 시간의 확보가 중요하지만 매주 수요일 1-3시 이 정도쯤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그것마저도 싫다면 그건 예술가의 마인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개인적인 공간을 구하면 된다.
- 최윤주(코코코) : 공적인 공간을 사용하려면 시민들에게 오픈해야 한다는 맞바꾸기 식의 교환보다는 그것이 일종의 대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문화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들과의 접점이 사업으로서 만들어지는 순간 불편해지는 것 같다.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서로 다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 공간 설계가 정말 중요하다. 어느 곳은 유리창이 있어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데 여긴 냉장고 같은 분위기라 아쉽다.
- 근본적으로 지어질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을까 싶다. 이런 공간을 오픈할 때는 작가들의 의견을 꼭 반영 했으면 좋겠다.
- 창작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제 경우에는 분명한 게 좋았다. 경기문화재단 계약서를 보면 매우 촘촘하게 작성되어 있는데 이 공간에 대한 목적성이 어느 정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예술가들이 동의를 하고 방향성을 잡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안에서 관에서도 예술가들에게 어느 정도 자율성을 줄 필요가 있다. 일정 부분은 예술가들한테 할당을 해서 이 공간에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논의하고 예술가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느 정도는 절충되지 않을까 싶다. 관에서는 방향이나 목적을 제안해주고 예술가가 이 안에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예술가의 몫으로 주었으면 한다.
- 최윤주(코코코) : 사전 협의가 중요할 것 같다. 물리적 공간은 이미 주어졌고 수정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그 안에서 운영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이 곳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좋을 것 같다. 입주 작가 설명회나 워크숍을 통해서 공간 운영주체 입장에서 가져가야 할 방향을 설명하고 예술인들의 생각을 충분히 이끌어 내어 운영방식 등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곳에 방문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이 공간이 어떤 모습이면 좋을지도 들어보고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어떤 지점에서 만나고 싶은지 이야기를 모아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든다.
- 예술가분들은 이 공간에 얼마나 자주 나오는가.
- 박지원(수원문화재단) : 한 달에 15-20일정도 의무출석날짜를 지키지 못하면 퇴실하도록 되어 있다.
- 일단 공간에 나와야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예술가들의 활동을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오고가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 오롯이 이곳을 개인 작업실로만 생각한다면 시민들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다. 공간에 대한 방향성이나 가이드가 주어진 상태에서 의욕적으로 시민들과 교류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활동가 선생님들도 많을 것이다. 소통하기위한 노력을 부단히 해나가야 한다.

- 워크숍이나 프로그램을 진행 할 때 수익을 작가들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하다면 이를 싫어하는 작가들을 없을 것 같다.
- 예술가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고 이 안에서 무언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 해주면 좋을 것 같다.
- 이 안에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면 관심 있는 사람들은 계속 오게 될 것 같다. 여기계신 한분이라도 이 공간 안에 작품들을 세팅 해 놓으신다면 그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문화교류가 확대되어지고 일반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 질 것 이다.
- 최윤주(코코코) : 이 곳이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서 활용된다고 하면 작가들이 어떻게 시민들을 만나고 교류 하면 좋겠는가.
- 일반시민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이런 공간을 내어주어 창의적인 활동들을 켜켜이 쌓아나간다면 좋을 것 같다. 예술인들이 시민들과는 ‘클래스’가 다르다는 식의 마인드라면 교류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일반시민들은 예술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높이고 예술가들은 예술을 나누는 자세를 조금 낮추어 서로 접점을 맞출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 축사가 이렇게 재미있게 설계된 상황이 참 안타깝다. 실내와 실외가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매력 있는 공간이 될 것 같다. 한쪽은 시각예술 창작자들 위주 공간, 한쪽은 레지던시 위주의 공간, 또 다른 한쪽은 장르 구분 없이 사람 구분 없이 열어주면 좋을 것 같다. 예산이 없다면 프로젝트 기간을 압축해서 진행해본다든지 우선 뭔가를 시도 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한 쪽에서는 입주자들이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다른 쪽에서는 수원에 있는 다양한 예술 교육가들이 무언가를 실행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면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구조가 순환적으로 잘 이루어지게 되면 내부인들과 외부인들의 접점이 자연스럽게 만들어 지고 음악이든 무용이든 다양한 장르들이 구분 없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을 것 같다.

## 5 토론

### ■ 공적공간 VS 민간공간

- 최윤주(코코코) : 공적공간과 민간공간에서 거점 구축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 인천문화재단의 지원 하에 민간공간에서 아동 프로그램과 성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님이 개인적인 사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고 계셔서 개인 부담이 크실 것 같은데 확실히 지원이 없으면 운영하기가 어렵다. 다소 낙후된 지역이지만 주민들이 공간을 알고 있고 한번 참여 하셨던 참여자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간간히 소개를 해주기도 한다. 지역 활동을 통해 유지가 되는 점도 있지만 지원금이 있다면 시민들에게 더 좋은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이다.

- 복지기관에서 장애인분들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공간이 있지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어지는 보조금이나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 강사비도 정해져 있고 수원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힘들다. 예술가들도 수익이 있으셔야 하는 부분이고 그러다보니 개인 작가들에게 의뢰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알음알음 소개를 받아 비용을 낮게 책정 하시는 분들을 통해 진행한다. 조건에 맞는 교육자분들을 모으는 것이 너무 어렵다. 또한 복지관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다 보니 강사 분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진행방식이나 난이도 등이 맞지 않아 결국 아는 분들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데 대상자들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있다면 우리 기관은 언제나 열려있다. 다양한 예술인들을 만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
- 우리단체는 공간이 없어서 공간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고민이 있었는데 이번 모임에 참여하면서 지역 안에 열려있는 공간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자체적인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입맛대로 펼쳐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다양한 공적 공간에서 진행할 수 있는 공모사업들이 좀 더 다채로워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 최윤주(코코코) : 공적공간에 대한 방향성이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 기관이랑 예술가가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게 되면 보수가 형편없다고 생각한다. 이 금액에 과연 어떤 예술가분이 오셔서 강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관의 예산이나 상황은 어쩔 수 없겠지만 예술가 입장에서는 책정되는 강사비 기준이 비현실적이다. 예술가만 계속 소모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할 수 없을 것이다. 공공에 대해 바라는 또 다른 점은 문화예술교육에 있어 누구나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열어 놓는 것도 좋지만 구체적인 교육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서울문화재단의 경우 예를 들면, 인문예술교육에서 교과목과 연계된 예술교육이라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다. 수원문화재단에서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지원할 것인지가 중요한 부분 일 것 같다. 수원시민들에게는 어떤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한지 그리고 대상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고 트렌드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지를 고려해야 한다.
- 한민주(수원문화재단) : 시민문화예술교육을 111CM에서 진행했었는데 담당자로서 가장 고민되는 것은 교육을 어디서 해야 할까, 참여대상을 고려해서 시간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라는 것이었다. 같은 공간 안에서 문화예술 관련 행사들이 동시에 진행되어 서로 협의를 많이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는 않다는 생각을 했고 우리가 충분히 확보를 해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다. 예술가들이나 지역에 있는 복지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가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부족한 자원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예술가 입장에서 공공기관과 직속으로 계약을 해본 적이 없다. 기획자가 끼어있는 상황에서 진행 해왔는데 대안학교나 작은 공공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주저하게 된다. 강사 책정비가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그 기관과 의견을 나누거나 기치관이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정을 모르고는 예술가 입장에서는 재능기부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도 든다. 그래서 기획자가 함께 있다면 공적공간에서 시민들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다.

- 예산은 기관에서 정할 수 없다. 수원시에서 정한다. 강사비를 올려주려고 해도 수원시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기관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하다. 강의 요청을 할 때 낮은 비용을 드려야 해서 항상 죄송해야 하고 거절하실 땐 담당자들도 상처를 받기도 한다.
- 박지원(수원문화재단) : 경기에서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해서 문화예술교육을 실제 기획하고 강의를 하는 사람들에게 최소 25만원은 줘야한다는 이야기들이 있다. 아직도 시에서는 3만원, 3만 5천원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변화되어야 한다.
- 최윤주(코코코) : 민간공간들이 지역에 거점으로 자리 잡으려면?
- 현재 활동하고 있는 지역은 어르신들이 많고 아이들이 적은 지역인데 문화를 보러 가려면 멀리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작은 공간이라도 하나 있으니 자주 왔다갔다 들락날락하시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초반에는 왜 여기 이런 공간이 생겼나 하는 반응이었다. 몇 년 동안 지역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지나가는 어른들에게도 “어떠어떠한 것들을 전시하고 있으니 보러오세요” 라는 말들을 건 낼 수 있게 되었다. 지역 안에서 시간을 두고 함께 살아가면서 말뿐만이 아닌 사람들과 연결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 최윤주(코코코) : 공공기관에서 누군가의 집 앞까지 문화예술을 배달해 주는 것이 쉽지 않은데, 민간의 영역은 시민들이 쉽게 예술을 접하고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인 것 같다.
- 기관은 크지만 지역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있다. 지역 안에서는 공공보다는 민간이 적합하기 때문에 기관과 민간이 연계를 해서 진행 한다면 하나의 소통 구조가 마련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 민간공간에 대해 관심이 없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이어서 쉽게 민간공간을 준비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 수원에 있는 민간공간들을 잘 모른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 독립서점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개인이 하시는 갤러리나 그런 공간들은 잘 모르겠다. 개인이 공간을 꾸려나가신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다. 어떤 공간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 개인적으로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면서 지역에서 거점으로서 역할을 잘 못한다고 느꼈다. 어르신들에게 ‘보러오세요’ 라는 말조차 해보지 못했다. 문화예술거점으로서 자리 잡기위해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
- 최윤주(코코코) : 문화예술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우리가 문화예술로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점에서는 사람들이 문화 예술에 대한 배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있어야 할 것 같다.

## ■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를 위한 방안

- 최윤주(코코코) : 문화예술교육분야의 여러 관계자들 간 네트워킹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 개개인의 생각과 욕구를 맞춰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111CM에서 글쓰기 모임으로 네트워킹을 하자고 만들어도 사람들이 뭉쳐지지 않는다. 어떻게 풀어야하지, 풀 수는 있을까 라는 고민들만 하게 된다. 아무래도 형식적인 자리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 계속 답이 없는 질문들을 이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사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쉬운 것은 아니다. 과연 내가 이 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도 크다. 진행하시는 분께서 잘 이끌어주시고 독려해주셔서 나올 수 있었다.
- 홍보 브로셔를 봤을 때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공간이 50개 정도(동행공간) 있었던 것 같다. 만약 예산이 있다면 문화예술교육과 네트워크 두 가지 키워드에 관심이 있는 참여자들을 모아서 내년도에 10개의 거점공간을 임의로 선정해서 투어형 네트워크 모임을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다. 월마다 주제를 가지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재미있을 것 이다.
- 모임에 나와 좋은 분들을 만나도 선뜻 다가가는 것이 어렵다. 그 분들은 이미 활동하고 계시는 근거지가 있고 가까워지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참여자들끼리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교류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는 일종의 장치들이 마련되면 좋겠다.
-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많은 사람들이 모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1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연초에 선발해서 일정 기간 동안만이라도 계속해서 해나간다면 그것이 아카이빙 되어 또 다른 누군가가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활동 내용을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하고 자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긴 호흡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마련해야한다. 그 안에서도 다양한 작은 시도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서로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배울 수 있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 최윤주(코코코) : 주체자 입장에서는 네트워크모임이 필요하다고 해서 열었는데 잘 오지 않고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와도 그 다음이 없다는 생각이 큰 것 같다. 오랜 시간동안 우리의 목소리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그림을 그리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이다. 그에 대한 1단계 스텝은 오늘로써 마무리 되었다. 오늘까지 5번의 만남을 통해 논의되었던 것들을 잘 정리해서 재단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예정이다.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들이 사라지지 않게 차곡차곡 아카이빙 하고 내용들을 공유해나가면서 그 위에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덧칠 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

## 2022 수원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모임 어디서, 어떻게 예술할까?

---

**발행일** 2022년 12월 22일

**발행처** 수원문화재단

**기획편집** 소셜드림프로젝트COCOCO